

패총조사보고 (貝塚調査報告)

慶南 昌原郡 上南面 加音丁里, 外東里

文化財研究室
趙由典

1. 序言
2. 貝塚의 位置
3. 地表에서 採集된 遺物現況
4. 加音丁里와 外東里貝塚의 比較
5. 結言

1. 서언(序言)

경상남도(慶尙南道) 창원군(昌原郡) 상남면(上南面) 일대(一帶)는 예로부터 유적지(遺蹟址)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경남(慶南)의 향토(鄉土) 문화상(文化上) 중요한 곳으로 평가(平價)되고 있다.

필자(筆者)는 이 지방(地方)의 유적(遺蹟)을 이미 답사(踏査)한 바 있었고 그후 1970年 1月 21日~1月 27日에 걸쳐 상남면(上南面) 일대(一帶)의 패총유적(貝塚遺蹟)을 조사(調査)하게 되었다.

이미 알려진 유적지(遺蹟址)로서는 상남면(上南面) 성산리(城山里), 가음리(加音里)의 지석묘군(支石墓群)이 보고(報告)되어 있고 인접(隣接)한 태동면(態東面), 태남면(態南面), 진해(鎭海) 등(等)에서도 선사유적지(先史遺蹟址)로 알려진 곳이 많다. (註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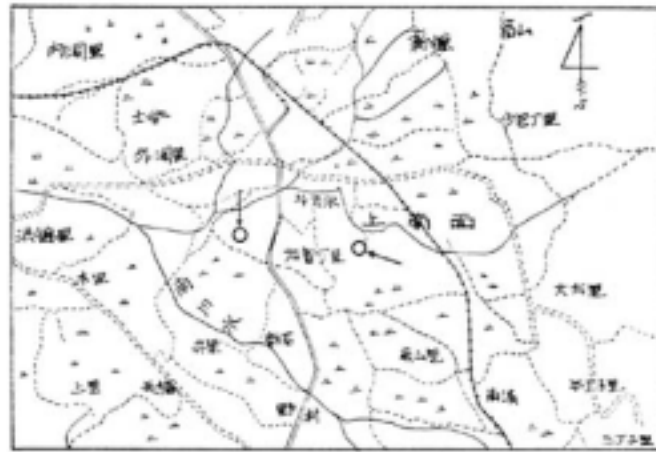
이번 조사기간(調査期間)에 상남면(上南面)의 가음정리(加音丁里)와 외동리(外東里)에서 새로이 패총(貝塚)을 발견(發見)하고 지상(地上)에서 채집(採集)한 유물(遺物)을 통(通)해서 그 성질(性質)을 설명(說明)하고 아울러 두 패총(貝塚)을 비교(比較)하여 그 성격(性格)을 밝혀볼까 한다.

2. 패총(貝塚) 위치(位置)

상남읍(上南邑)에서 진해(鎭海)로 가는 도로(道路)를 따라 1km쯤 가면 내(川)를 건너게 된다. 이 내는 마산(馬山) 합포(合浦) 앞바다로 흘러가는 남천수(南川水)와 합(合)

註 1) 金元龍編 韓國史前 遺蹟遺物地名表(國立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第二冊) 1965

하게 되는데 다리 전방(前方) 300m 앞쪽에 남면중학교(南面中學校)(남녀공학(男女共學))가 있다. (중학교(中學校) 뒷뜰에 남방식(南方式) 지석묘(支石墓) 일기(一基)가 있다) (圖1)



(圖面 1 責塚의 位置) (1 : 50,000)

이 학교정문(學校正門)에서 정남방향(正南方向)을 보면 패총(貝塚)이 있는 낮은 언덕이 100m 앞쪽에 보이고 가음정리(加音丁里)는 다시 정문(正門)에서 남(南)쪽으로 15m 전방(前方) 좌편 소로(小路)를 따라 7~800m 나아가면 위치(位置)하고 있다. 행정구역상(行政區域上)으로는 같은 면(面)속에 있지만 패총(貝塚)의 위치(位置)는 각기(各己) 다르다. 남면중학교(南面中學校)가 국도변(國道邊)에 위치(位置)하고 있지만 원래(元來)는 가음정리(加音丁里) 패총(貝塚)이 있는 구릉(丘陵)과 연결(連結)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패총(貝塚)이 있는 두 언덕은 50m 이내(以內)의 낮은 구릉(丘陵)에 불과하며 마산(馬山) 합포만(合浦灣)으로 이어지는 이 내(川)와 남천수(南川水) 사이의 구릉지대(丘陵地帶)를 제외(除外)하고는 모두가 전답(田畓)을 이루고 있다. 패각(貝殼)이 쌓여져 있는 이 구릉지대(丘陵地帶)에 사람이 살면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또한 패류(貝類)를 채취(採取)해 가면서 생활(生活)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패총(貝塚)에 공(共)히 굴껍질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도 짐작이 가는 사실(事實)이기도 하다.



(圖 1 南方式 支石墓)

3. 지표(地表)에서 채집(採集)된 유물현황(遺物現況)

가음정리(加音丁里)나 외동리(外東里) 패총(貝塚)은 모두 마을 뒤 언덕에 있으며 인가(人家)와는 떨어져 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圖 2, 3) 트렌치를 넣지 않고는 패총(貝塚)의 확실(確實)한 두께를 알기에는 곤란하지만 계단식(階段式) 밭을 이룬 부분에 노출(露出)되어 있는 패각(貝殼)을 볼 때 적어도 2m 이상(以上)의 두께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筆者)는 두 패총(貝塚)표면(表面)에서 (圖 4, 5) 토기편(土器片) 다수(多數)와 일점(一點)의 골기(骨器)를 채집(採集)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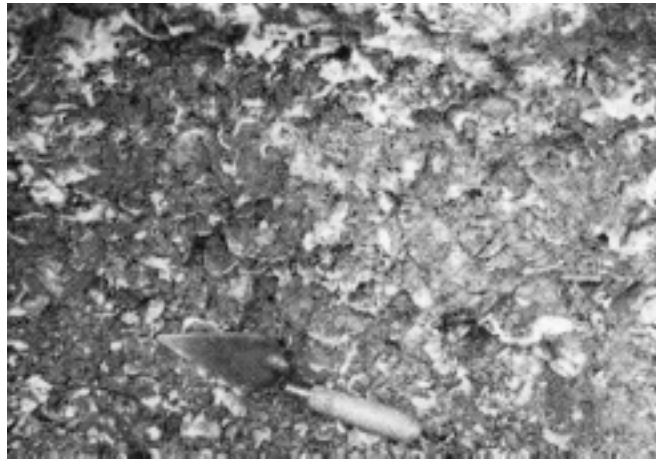
(圖 2. 加音丁里貝塚)



(圖 3 外東里貝塚)



(圖 4. 加音丁里貝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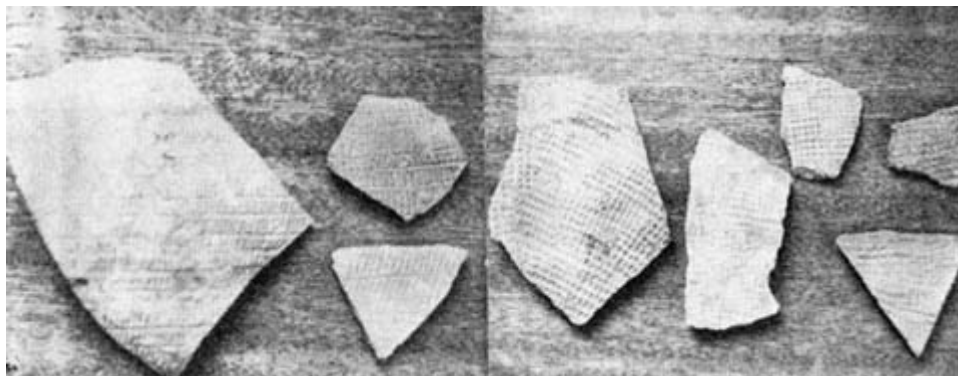


(圖 5. 外東里貝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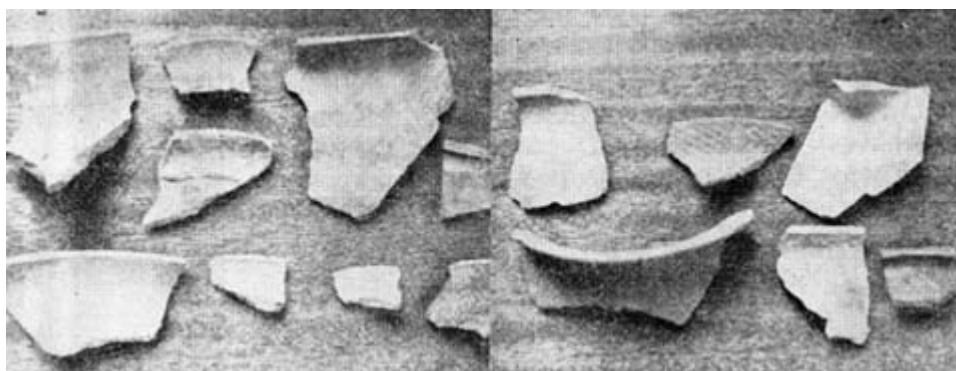
ㄱ. 토기(土器)

토기(土器)는 전형적(典型的)인 김해토기(金海土器)로서 정선(精選)된 태토(胎土)이고 홍색(紅色), 회청색(灰青色)이 대부분이며 또한 기벽(器壁)은 매우 단단한 편이다. 표면(表面)문양(文樣)은 격문(格文)과 승석문(繩蓆文)(돛자리文)이 압도적(壓倒的)이고 (圖 6, 8) 그 외(外)에 파상문선문(波狀文線文)등(等)이 보인다. 모두 시문패(施文貝)를 사용(使用)했으며 기(器)내부(內部)에도 선문(線文)이 있는 토기편(土器片)도 있었다. 그리고 우각형(牛角形) 손잡이(도면(圖面) 2)가 채집(採集)되어서 이 두 패총(貝塚)에서 출토(出土)되는 토기(土器)의 편년(編年)에 도움을 준다. 채집(採集)된 파편(破片) 중(中)에는 토기(土器)의 형태(形態)를 추측(推測)할 수 있는 구연부편(口緣部片) 20여개(餘個)와 몸체와 구별(區別)되는 6개(個)의 저부(底部)가 있고, 파수부편(把手部片) 6점(點)이 있었다. 구연부(口緣部)는 거의 전부(全部)가 외반(外反)되어 끝나고(圖 7) 저부(底部)는 직경(直徑)이 7.5cm 되는 뚜렷한 평저토기(平底土器)와 그 외(外)에 원저토기(圓底土器)가 보인다(도면(圖面) 3). 복원(復元)하면 감(罍), 호형(壺形)의 토기(土器)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외동리(外東里)에서 채집(採集)된 좀 특이(特異)한 형식(形式)으로는 기대편(器臺片)으로 투창(透窓)이 있고 6가닥의 파상문(波狀文)을 새긴 것이 있다. (圖 9)



(圖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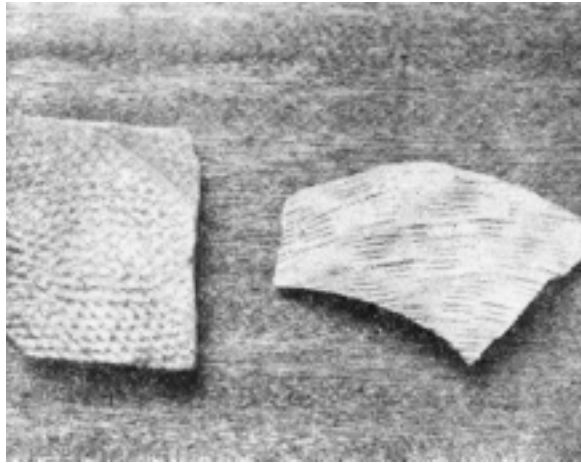
(圖 7 外反된 口緣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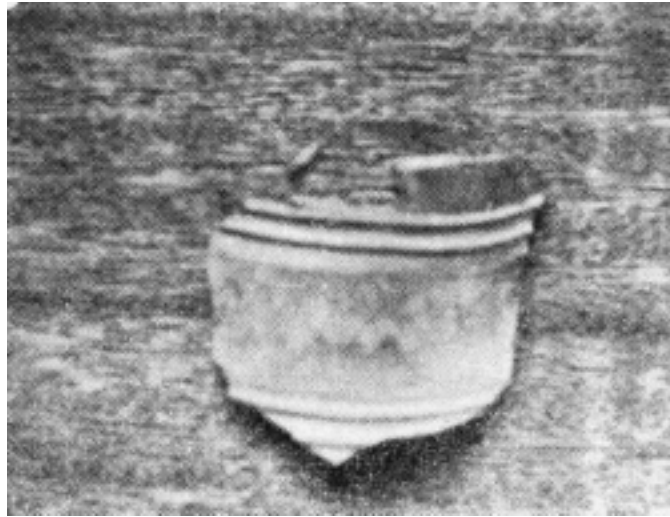
(圖面 2 牛角形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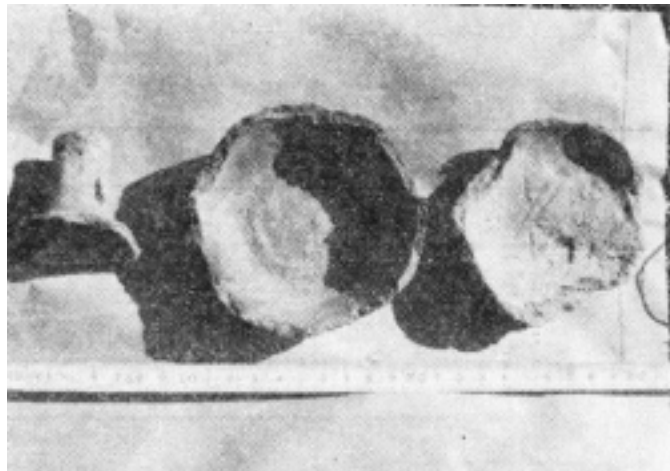
(圖面 3 平底. 圓底土器)



(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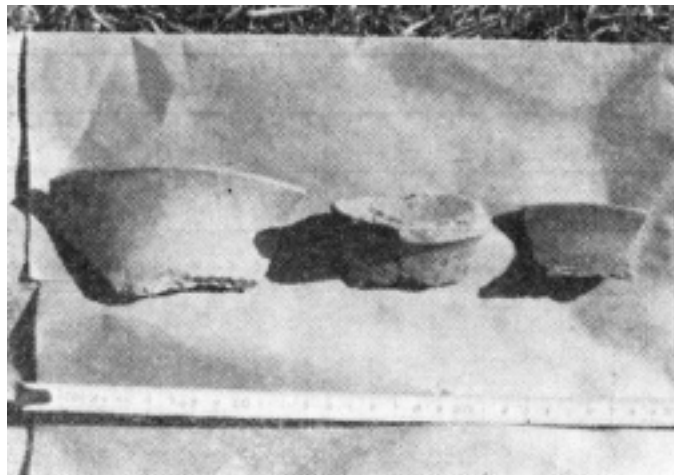
(圖 9)



(圖 10)



(圖 12)



(圖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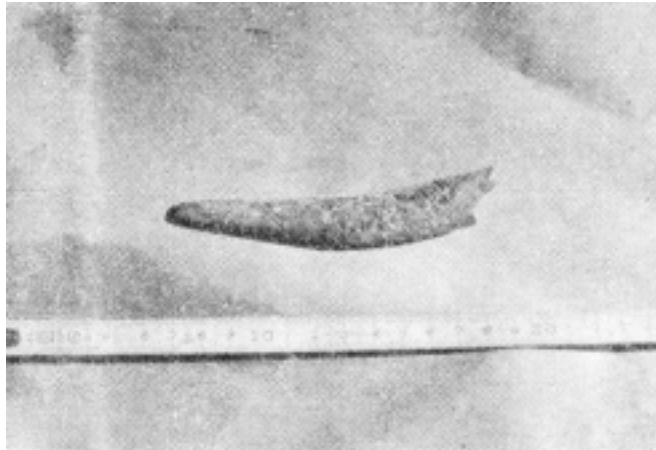
(圖面 4)

파수편(把手片)은 우각형(牛角形) 3개(個)와 몽뚝한 것, 그리고 파수(把手)의 끝 부분(部分)을 절단한 형태(形態)로 투창(透窓)을 내려다 그만둔듯한 흔적도 보이지만(圖 10좌(左)) 모두가 우각형(牛角形) 손잡이의 변형에 불과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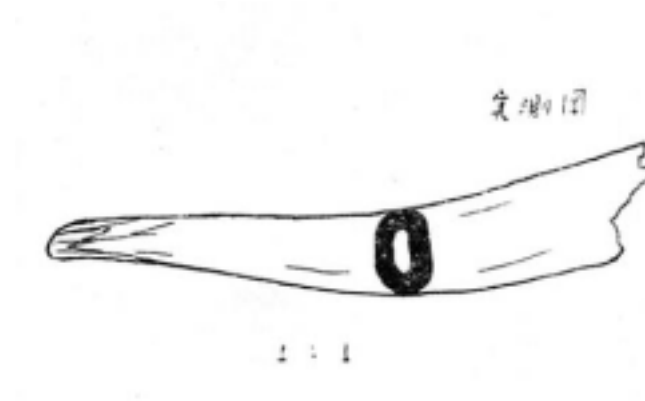
토기편(土器片) 가운데 새롭게 여겨지는 한점의 토기(土器)가 가음정리(加音丁里)에서 채집(採集)되었는데(圖 11중(中)) 홍색(紅色)의 고운 점토질(粘土質) 토기편(土器片)으로서 토기대(土器臺)로 여겨지며 투창(透窓)의 흔적(痕迹)도 보이지 않고 기대부분(器臺部分)의 두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얇어지고 있다.(도면(圖面) 4). 이 토기(土器)는 회청색(灰青色) 고배(高杯)의 모체(母體)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ㄴ. 골기(骨器)

채집(採集)된 단(單)하나의 골체(骨體)는 가음정리(加音丁里)의 패각층(貝殼層)에 박혀 있는 것을(圖 12) 수집(收集)했다. 전장 11.5cm의 뿔 모양의 골체(骨體)로서 끝이 뾰족하게 깎였고 김해(金海)패총(貝塚) 따위에서 흔히 보는 도자병(刀子柄)임이 분명(分明)하다.(圖 13, 도면(圖面) 5)



(圖 13)



(圖面 5)

(圖面 5)

4. 가음정리(加音丁里)와 외동리(外東里) 패총(貝塚)의 비교(比)

두 패총(貝塚)의 토기질(土器質)은 같았고 채집(採集)된 형태(形態)에서의 토기문양(土器文樣)은 가음정리(加音丁里)가 보다 다양(多樣)하며 토기(土器)파수편(把手片)은 외동리(外東里)보다 가음정리(加音丁里)가 우각(牛角)에 가깝다. 기저(器底)는 역시(亦是) 평저(平底)와 원저(圓底)가 함께 채집(採集)되었으며 석기류(石器類)는 일점(一點)도 채집(採集)하지 못했고 골기(骨器)만 가음정리(加音丁里)에서 일점(一點)더 나온 셈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리상(距離上)으로 떨어져 패총(貝塚)을 이루고 있지만 다음의 비교표(比較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동일(同一) 문화(文化)의 소산(所産)이라고 믿어진다.

5. 결론(結言)

이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두 패총(貝塚)은 김해기(金海期)에 해당하는 유적(遺蹟)이

며 동남해안(東南海岸)일대(一帶)에 퍼졌던 원사문화(原史文化)의 한 지방단위(地方單位)이다. 다만 시굴(試掘)을 하지 않아서 패층(貝層)의 두께라던가 층서(層序) 따위를 밝히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장차의 자세한 발굴이 요망되는 바이다.

특(特)히 외동리(外東里) 패층(貝塚)이 있는 부근(附近)의 구릉지대(丘陵地帶)에서 삼국시대(三國時代) 것으로 보이는 와당편(瓦當片)과 대형(大形)토기편(土器片)이 산재(散在)해 있음을 볼 때 고분기(古墳期)와도 연관성(連關性)을 가질 가능성이(可能性)이 있어 더욱 이 지역(地域)일대(一帶)의 정사(精査)가 필요할 듯 하다.

採集 遺物 比較表

		加音丁里	外東里
口 綠 部 片		13	8
文 樣	繩 席 文	6	5
	格 文	6	1
	線 文	2	1
	破 狀 文		1
牛 角 形 把 手		3	3
器 底 片	平 底	1	2
	圓 底	1	2
骨 器		1	
計		33	23